

[ 사회 ]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불편'

## 광주·전남 운동능력 측정기 나주 한 곳 뿐

지체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운동능력 측정용 기기(사진)가 광주·전남에 한 곳 밖에 없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의 문제 등이 겹쳐 있고 수요도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면허시험장에 있는 기기는 지난 1995년 6천만원을 들여 설치된 것이다.

요한 장애인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올 현재 6천800명이며, 전국적인 발급 건수는 ▲2004년 7천90건 ▲2005년 7천391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5조)은 장애인의 경우 '의수·의족 등의 보조수단을 사용하거나 보조장구 없이 핸들·브레이크·엑셀러레이터 등의 조작 능력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동능력 평가기'에 의해 운전적성의 판정에 합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핸들 조작은 580도를 꺾을 수 있어야 하며, 3kg의 힘을 10초 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식 브레이크의 경우 8kg의 힘을 10초 이상, 엑셀러레이터는 4kg의 힘을 10초 이상 지속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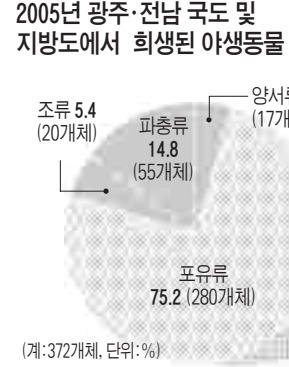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에서 보조장구 등이 필

# 야생동물 교통사고 족제비 最多

## 광주·전남 '로드 킬' 너구리·유혈목順

국도와 지방도를 운전하다 보면 차에 치여 죽은 야생동물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희생된 야생동물은 무엇일까?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의 80개 국도 및 지방도에서 '로드킬'(Road Kill·교통사고)에 의해 희생된 야생동물 372개체를 조사한 결과, 족제비가 143개체(38.4%)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으로는 너구리(22.8%)와 뱀의 일종인 유혈목이(6.2%), 청설모(5.3%), 다람쥐(5.3%) 등이 뒤를 이었다. <표> 환경청은 족제비가 다른 동물에 비해 매우 활동적이고 먹이가 부족할 때는 먼 거리까지 이동하기 때문에 위험이 컸다고 분석했다.

로드킬이 가장 자주 일어난 곳은 ▲영암~보성 2번국도(27건) ▲목포~무안 1번국도(24건) ▲옥과~화순 15번국도(21건) 등이었다. 이곳은 기존의 2차선에서 최근 4차선으로 확장된 도로로,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던 야생동물들이 도로로 바뀐 곳을 서식지로 착각해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로드킬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시기는 9~10월이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비바람에 옷깃 날리고 4월 19일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음 3월 22일) <전국날씨>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번개	13~16℃
목포	흐리고 비, 번개	12~15℃
여수	흐리고 비, 번개	13~15℃
순천	흐리고 비, 번개	12~16℃
해남	흐리고 비, 번개	11~15℃
영광	흐리고 비, 번개	12~17℃
영암	흐리고 비, 번개	11~17℃
보성	흐리고 비, 번개	12~16℃
고흥	흐리고 비, 번개	11~15℃
진안	흐리고 비, 번개	12~16℃
완주	흐리고 비, 번개	11~15℃
장흥	흐리고 비, 번개	12~16℃
강진	흐리고 비, 번개	13~15℃
곡성	흐리고 비, 번개	12~15℃
담양	흐리고 비, 번개	12~15℃
영광	흐리고 비, 번개	12~15℃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2.0~4.0m  
남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2.0~4.0m  
남해북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2.0~4.0m  
목포 밀물 < 05:41 썰물 < 10:56  
17:28 썰물 < 22:52  
여수 밀물 < 00:13 썰물 < 06:24  
12:10 썰물 < 18:11

▲해돋이 05:56 ▲해질 19:08 ▲달출 09:21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6/13	5/22	9/22	11/16	9/19	9/23

# 광주·전남 강풍 동반 비

19일 광주·전남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9일 10~30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천둥번개를 동반한 돌풍이 불고, 일부 내륙 산간 지방에는 우박이 오는 곳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9~13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또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모든 해상에 풍랑예비특보(초당 14m)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다의 물결이 2~5m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을 광역 자치단체 '사교육 물가'

# 광주 가장 많이 올랐다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사교육 관련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광주 19.2%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을 들어 지난 달까지 전국의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올랐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전산학원, 독서실,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가 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기 4.3%, 부산 3.9%, 경남 3.9%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대전으로 1.9%에 그쳤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5·18 26주년 '오월에서 통일로'

## ■ 기념행사 기조·일정 발표

### 5월13일부터 시작 중심무대 舊 도청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박석무·앞줄 왼쪽 두 번째)가 18일 옛 전남도청 내 위원회 사무실에서 올해 기념행사의 기조와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가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오는 5월13일부터 시작된다. <표>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위원회'(상임위원장 박석무·5·18기념재단이사)는 18일 오후 옛 전남도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올해 기념행사의 기조와 일정을 발표했다.

행사위는 "6·15 남북공동행사가 광주에서 열리는 만큼 '5월 정신을 바탕으로 민중이 하나가 돼 통일을 기원하자'는 뜻을 담은 '오월에서 통일로'를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위는 또 기념행사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계획이며, 행사가 5·31지방선거에 묻히지 않도록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행사위는 특히 옛 전남도청을 1980년 당시의 모습으로 꾸며 체험·전시 행사를 열고 전체 행사의 중심무대를

국립 5·18묘지에서 옛 전남도청과 인근으로 옮기기로 했다.

주요 기념 행사는 ▲정신계승 국민대회(13~14일 금남로) ▲전야제 '2006년을 위한 행진곡'(17일 금남로 등) ▲추모제(17일 국립 5·18묘지) ▲학술대회(23~24일 전남대) ▲성회(18일 옛 전남도청 앞) ▲부활제(27일 옛 전남도청 앞), 민주기사의 날 행사(20일 무등경기장 등) 등이다. 또 5·18 자유공원 영창체합·만장

결계 설치전·회화대회·사진전·청소년 문화제·마라톤·음악제·광주인권상·국제평화캠프 등도 예년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80년 5월의 정신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소망과 다름없다"면서 "당시의 외침을 기념 행사 주간에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행사 일정

구분	일시	행사명	장소
기념정신 계승행사	5.13(토) ~ 14(일)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정신계승 국민대회	전남도청 앞 - 금남로
	5.17(수) 9:30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 추모제	국립 5·18 묘지
	5.17(수) 12:00 ~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 전야제	5·18묘지 - 도청 - 금남로
	5.18(목) 10:00	5·18 민주화운동 제26주년 기념식	국립 5·18묘지
	5.18(목)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성회	국립 5·18묘지
	5.20(토) 14:00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 민주기사의날	광주 무등경기장 - 도청
문화예술 행사	5.27(토) 18:00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제5회 부활제	전남도청 마당
	5.13(토) ~ 5.25(수)	2006 오월전 "지침과 지향" 여섯 개의 시선 오월판화전, 사진전	구 전남도청
	5.13(토) ~ 주말개최	체험행사 - 나도 시민군, 생방송	
	5.13(토) ~ 6.15(목)	6·15 사진 전시회 - "오월에서 통일로 달려오 길"!	인월동, 금남로, 평천터미널
	5.13(토), 14(일), 17(수)	5·18 전국 실업·노동자 지역별 나눔 한마당	금남로
	5.17(수)	5·18 정신계승 공동체살현을 위한 주역만나기	금남로
기타행사	5.20(토)	제4회 전국취업대회	5·18 국립묘지
	5.11(월) ~ 31(수)	5·18 민주화운동 26주년 무선 홈 북보영	주요 행사장소
	5.18(수) 14:00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희생자 영령특별전	인월동
	5.20(토) 14:00	제3회 5·18 청소년 문화제 - RED FESTA	전남도청 앞 - 금남로 전역
	5.14(일) 10:00	5·18 민주항쟁 제26주년 기념 제6회 518마라톤 대회	사무사민공원
국제연대 사업	5.14(토) ~ 18(수)	광주국제평화캠프	5·18기념공원 일대
	5.18(수) 17:00	제6회 광주인권상	5·18기념문화관 대ホール

## "전대 한의대 추진 중지" 광주시의사회 성명

광주시의사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남대는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추진중인 한의대 설립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국립대들이 한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대학 동맹에 따른 보상과 한의대 유치에 따

른 대학 위상 강화의 기대만 있을 뿐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다"며 "동서의학의 협진을 촉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의료전달시스템의 혼란, 동서의학 간의 갈등, 진료상의 마찰, 중복진료로 인한 낭비 등 부작용만 확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강제로 한의대 설립이 추진될 경우, 국민을 대신한 어떤 희생도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목개발 TEL: 062) 282-8806 28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법/임도/양수. 靑碩 C&S TEL: 0512-0247-0 FAX: 0512-125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텍수방수제 드림코리아 DREAM KOREA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1위 압력을 1위. 5월 1일 신도 시범. 새우 행정고시학원 TEL: 361-8111